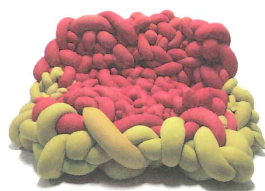


《Face chair》2013



《Body chair series1》2017

IN YEONGHYE

2014 B.F.A in Industrial Art (ceramic & fiber),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Art
2018 Master's course in Design and Material studies (Textile Desig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Art

2013 14th Iksan Korea Craft Competition special selection
(Iksan Arts Center / Iksan)
2015 Group Exhibition "Twins" (Lotte Gallery / Daejeon)
2016 11th Craft Trend Fair; Brand booth (COEX / Seoul)
2017 Group Exhibition "put together" (Morris Gallery / Daejeon)
12th Craft Trend Fair; Creator's booth (COEX / Seoul)
2018 Special Exhibition "Notice this Artist" (Voda Art Center / Daejeon)

印英惠

2014 忠南大学校芸術学部産業美術学科
陶芸及びファイバー・アート専攻卒業

2018 忠南大学大学院修士課程
デザイン及びマテリアル専攻(テキスタイル・デザイン)修了

2013 第14回益山市韓国工芸コンペティション特選
(益山アートセンター／全羅北道)
2015 グループ展「Twins」 (ロッテ・ギャラリー／大田市)
2016 第11回工芸トレンドフェア ブランド・ブース (COEX／ソウル)
2017 グループ展「put together」 (モリス・ギャラリー／大田市)
第12回工芸トレンドフェア クリエーター・ブース (COEX／ソウル)
2018 企画展「Notice this Artist」 (ボータ・アート・センター／大田市)

丸沼芸術の森は1985年、須崎勝茂氏(株式会社丸沼倉庫 代表取締役)により設立され、40名以上のアーティストを輩出してきました。30年以上の支援活動の結果、村上隆氏を始め、多くの作家が現在、国内外で活躍しています。丸沼芸術の森は制作の場に留まらず、アートと社会を結ぶ架け橋となっています。今後は、国際文化交流を通じ、よりグローバルな活躍を各作家が目指せるようにレジデンスや展覧会の企画などを積極的に行い、活動の幅をさらに広げていきます。

Marunuma Art Park was established by Mr. Katsushige Susaki in 1985, and we hosted over 40 artists since then. Many artists, including Takashi Murakami, are active both at home and abroad as a result of our continued support to artists for over 30 years. Marunuma Art Park is not only a space for the conception of art but also acts as a bridge connecting art to society. We aim to further expand by broadening the range of our activities and proactively executing residency programs and exhibition plans. We hope that our artists can become more involved in international exchanges and globally more active.

丸沼芸術の森
Marunuma Art Park

〒351-0001 埼玉県朝霞市上内間木493-1

TEL: 048-456-2533

FAX: 048-456-0003

<http://marunuma-artpark.co.jp>

<http://marunuma-artpark.eyes.es>

印英惠展 / 表情を持つ椅子

主催: 丸沼芸術の森・韓国工芸デザイン文化振興院

後援: 駐日韓国文化院・Azabujuban Gallery

丸沼芸術の森
MARUNUMA ART PARK

Kcdf Korea Craft & Design
Foundation

駐日韓国文化院
Korean Cultural Center

Azabujuban Gallery

印英惠 展 / In Yeonghye Solo Exhibition

表情を持つ椅子

Chair with facial expression



《Face chair series3》2016

Marunuma Art Park
2018 artists-in-residence program No.2

2018年8月9日(木)・10日(金)

握り拳程の大きさの、クッションによる集合体で構成される印英恵の椅子。そのクッションの球体は顔をイメージしたものだ。「小さく吊り上った目」「出っ張った頬骨」「大きな団子鼻」などの特長を持つ顔は、印自身の顔をモチーフにしたものだ。作品のモチーフとして顔を用いるようになったきっかけは、繊維工芸を専攻した美大生だった時期、友人が撮影した自分の顔写真だったと言う。そこに写っていた、それまで意識したことのない自身の表情に驚き、顔への興味を強め、ドローイングを幾度も繰り返した。

学生時代にはアーティストとして活動続ける自信を持てなかった印は、大学卒業後、一般企業に就職する。だが、作品を制作できないフラストレーションや、ルーティンワークに追われる日々の中で、あたかも「自分自身を失ってしまった」かのような強い喪失感に襲われたという。

印の椅子を構成する球体の顔に無表情なものが多いのは、半年間の辛かった会社勤めの時期の心境が反映しているという。しかし、鑑賞者が印の椅子に腰かけると、クッションの顔は変形し、笑ったり、怒ったりするかのような表情を見せる。また、奇妙な座り心地によって、実際に座った人の顔から、自然と笑みがこぼれる。作家自身の顔に人々を座らせる行為は自虐的にも感じられるが、ネガティブな経験を基にした作品によって、人々の笑顔を誘うポジティブなコミュニケーションこそが作品の主題であるという。

現代美術作品の中には、心の暗い側面を想起させるものも少なくない。しかし印の作品は、作者自身の温かな人柄や笑顔を反映したのを感じさせる。顔や表情を主題とした制作を今後も目指す、と語る印の作品を通し、一層多くの笑顔が生まれるようお願いしたい。

大竹輝明(丸沼芸術の森 学芸員)



《Face chair series4》2016



《Face chair series5》部分 2016



주먹 정도의 크기의 쿠션으로 구성된 인영혜의 의자는 구형과 얼굴을 표현한 것이다. "작고 가느다란 눈" "돌출 된 광대뼈" "둥근 코" 등의 특징을 가진 얼굴은 그녀 자신의 얼굴을 모티브로 한 것이다. 작품의 모티브로 얼굴을 사용하게 된 계기는 섬유 공예를 전공 한 미대생이던 시절, 친구가 촬영 한 자신의 얼굴이 담긴 사진이었다고 말한다. 사진에 담긴 자신의 표정이 여태까지 의식하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이었어서 놀라 얼굴에 관심을 갖게 되어 드로잉을 시작했다.

학창 시절에는 아티스트로서의 활동에 자신이 없었던 그녀는 대학을 졸업한 후 일반기업에 취직한다. 하지만 작품을 제작 할 수 없다는 좌절감과 루틴화 된 업무에 시달리는 중 마치 "자신을 잃어 버렸다" 는 상실감에 빠진다.

인영혜가 만드는 의자에 구형의 얼굴이 많은 이유는 반 년간의 고된 직장인시기의 심경을 반영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감상자가 그녀의 의자에 앉으면 얼굴의 모양은 변형되어 웃거나 화를 내는 것 같은 표정을 보여준다. 또한 낮은 촉감으로 인해 실제로 의자에 앉는 사람도 웃게 된다. 자신의 얼굴에 사람들을 앉히는 행위는 자학적으로도 느껴지지만, 부정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작품으로 사람들의 웃음을 부르는 긍정적인 소통이야말로 작품의 주제라고 한다.

현대미술 작품으로는 마음의 어두운 측면을 상기시키는 것이 많다. 그러나 인영혜의 작품에서는 그녀 자신의 따뜻한 인품과 미소를 반영한 것을 느낀다. 얼굴과 표정을 주제로 한 작업을 앞으로도 탐구 해나간다고 말하는 그녀의 작품을 통해 더욱 많은 사람들이 미소 짓기를 바란다.

오오타케 테루아키 (마루누마예술의 숲 학예원)